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수해 복구 앞장

지역 주민 50여명으로 구성... 집중호우 피해 시민 일상 회복 위해 '구슬땀'

익산시 수해 현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정영미)이 침수피해 복구활동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18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역자율방재단은 지난 10일 삼기면, 마동, 남중동 등에 모래주머니 및 방재 물품 배부를 시작으로 지역 예찰 활동과 재해 복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시 수해 현장에서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정영미)이 침수피해 복구활동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민간단체로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매일 50여 명의 단원들은 각자 생업이 있음에도 수해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복구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모현동, 주현동, 남중동, 신동 등 지역 곳곳 침수 피해가 발생한 주택, 상가를 방문해 바다를 청소하고, 집기 정리, 오염물 배출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오는 22일 함라면 비닐하우스 농가를 시작으로 집중호

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 돕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영미 단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방재단원들을 긴급 소집했다"며 "복구 활동과 함께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순찰과 신속한 대응으로 잠재된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익산시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 취약시설과 무더위 쉼터 안전 점검, 폭설 대비 시설 점검, 배수로 및 맨홀 토사 제거, 피해 복구 지원 등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마을 방역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익산시, 주민 자율방역단 발대식

취약 지역 중심 방역활동 진행... 방역 사각지대 최소화

익산시가 마을 방역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하고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8개 읍면동 자율방역단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바른 방역방법과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의 의지를 다졌다.

자율방역단은 (사)익산시새마을회,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마을 지리와 취약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이뤄졌으며 주 1회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절기에는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골목과 경로당 주변 등 취약 지역을 중

심으로 촘촘한 방역을 진행하고 동절기는 모기 유충구제 활동을 진행한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방역이 활성화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소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위생해충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보건소는 보건소 방역기동반, 29개 읍면동 방역팀, 노인일자리 방역팀을 운영해 위생해충에 의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수도 계량기 스마트 검침 시스템 구축

100억원 예산 투입... 2033년까지 수도 계량기 5만여개 교체 예정

군산시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수도 계량기 5만여 개를 전면 교체해 원격 수도 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상수도 사용량을 원격으로 검침하는 스마트검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원격 검침을 통해 수집된 물 사용량을 분석해 수도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프로

세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과거 1~2개월에 한 번씩 검침원이 직접 방문해 시행하는 검침에 비교해서 이번 스마트 검침은 1일 24회 수도 계량기를 원격 검침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군산시는 지난 2010년부터 상수도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을 일부 읍면동에 도입해 현재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5만건 중 1만 9

천건의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했다.

향후 2033년까지는 매년 3,500건의 디지털 계량기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원실 군산시 수도과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춰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 후 유수율을 제고하고 비대면 검침을 통한 사생활 보호, 정확한 검침을 통한 요금부과로 수도 행정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청년 농촌산업 관광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24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농촌과 문화에 특화된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청년들의 특색 있는 시각을 더한다.

익산시는 농촌 크리에이티브(CREATOR) 사업으로 진행되는 '청년 농촌산업 관광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촌 크리에이티브는 농민육산식품부가 주관하며 농촌과 문화관광에 특화된 테마관광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농촌문화 체험에서 벗어나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며 배

움·재미·휴식 등을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익산시는 농촌 크리에이티브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축하고 청년 크리에이터를 양성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협의체는 익산시, 농촌활력지원센터, 문화관광재단, 여행사, 마을만들기협의회, 시골여행협동조합, 청년활동가로 이뤄졌으며 10개의 여행상품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 농촌산업 관광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기간은 오는 24일

까지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다리로 울 시골여행www.isft.kr', '익산문화관광재단www.icf.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은 문화관광재단에서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관광객 응대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효과적인 해설 방법 △농촌산업과 문화관광의 특성 및 사례 △현장 답사 등이다.

익산시는 전문 가이드 양성으로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관광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현장 간담회

행안부-군산시, 사업주·청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 가져

행정안전부와 군산시는 지난 16일 전북신학융합원에서 군산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참여 사업주와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향후 해당 사업의 운영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행정안전부 차관보 및 지역청년정책과,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민생경제과, 군산시 관계자, 참여기업, 청년근로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소회와 개선점, 발전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나눴다. 이후에는 참여

기업 사업장 내부 주요시설을 탐방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행정안전부 김민재 차관보는 "이번 간담회는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가 현장에서 느낀 의견들을 청취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며 "말씀해주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청년이 만족하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한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간담회 개최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참여 청년과 지속적인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